군수님과의 대화

첨부1)

수신: 영동군청

참조: 박세복 군수님 귀하

보냄 : 충북 영동군 상촌면 상도대리 반점 마을 주민 대표 송 석범

날 짜: 2021.05 18

▶제 목

2021.04에 반점 마을 앞 망을 회관과 동네 사이 약 400 미터에 설치된 안전 나간대가 중간 중간 유실되어 있어 (첨부2 사진)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수 수리 해주실 것을 국민 신문고에 청원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 주민중 의식 있는 노인들이 우려를 하는 것을 듣고 주민 대[ㅛ 송 석범이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현재 코로나로 지방 정부 예산 편성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약간의 보수만을 해 주 것도 모두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 영동 군청의 담당자, 담당 계장 과 팀장이 설치장소를 방문하여 상태를 검정 한 후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서 더욱 좋은 상태로 완벽하게 보강하겠다는 결단에 대해서 지역 주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설치된 가드레일이 차량 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질 높은 고품격 안전 난간 대를 설치함에 지역 주민 모두 군수님의 칭송이 자자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 조희재는 평상 동네일에 항상 방해를 해 왔으며, 현 안전 난간대가 도로 폭을 줄였다는 생각과 문제가 있다는 것은 조희재 혼자의 생각입니다.

○ 동네에서 민원을 재기 하면 교행 할수 있는 폭으로 넓혀주고 / 길을 넓혀 설치 해 준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말을 믿지 않으며, 아무 의미없는 예산 낭비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 해방 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노인들도 이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의 편의만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과 거짓말에 동네 사람들이 속아 넘어 가지 않습니다.

특히 반점 마을은 설치 이전에도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아님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조희재는 불효자식으로 모친과 재산다툼으로 송사를 했으며, 상촌면의 지인들의 동의서를 받아 조희재 고발하여 모친인 저의 고모가 이겼던 사건이 있습니다. 싸가지 없는 인간으로 전부 소문이 났으며, 제 사촌 동생들한테 재산 한푼 안준 인간입니다. 무지막지하고 자신을 위해서 지역주민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현재 반점 마을의 도로가 좁아 회전차 지역이 없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음에도 하천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조희재 개인의 전/밭, 온실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쇠줄를 쳐놓고 혼자 차량과 농기계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것 내것 구분이 안되고 기초적 자본주의 시민의식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 목욕치, 소방차, 구급차 등이 후진으로 마을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희재가 무단 점유한 하천 부지를 원상복구 시키고, 마을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되어야 합니다. 제 소유의 땅100평을 마을 위해서 주차장 및 회전차 지역으로 사용하도록 내놓겠습니다.

거듭 군수님의 애민 정신과 공무원들의 공복으로서의 질 높은 행정 서비 정신에 깊은 감사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고향 가꾸기에 반점 마을 주민 모두는 희생과 봉사 할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길 되찾아 [illegible] 주셔서 [illegible]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